

치열하게 종단했던 80년대 대학생활



미당 서정주 시인은 자신을 키운 8할이 바람이라 했다. 하지만 나를 키운 8할은 학교였고, 그 가운데 8할은 대학이었다. 아들뻔 되는 까마득한 후배로부터 개과(開科) 60주년 문집을 만드는데 대학생활 회고담을 A4용지 1장에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어이가 없었다. 10장도 부족할 텐데 그런 원고는 못 쓰겠다고 거절했다. 1분 뒤에 다시 분량에 상관없다는 전화가 왔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학생활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우리 대학사에서 어느 시기치고 격동이 아니었던 때가 있으라마는 1980년대는 1960년대와 함께 격동의 시기였다.

가끔 제자들이 “교수님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무엇이 가장 아쉬워요?”라고 묻는다.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과장되지 않은 솔직한 대답이다. 가끔 받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교수님의 대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어떻게 교수까지 되셨어요?” 이

물음에 답할 때는 약간 곤혹스럽다. “나는 꿈이 없었다. 꿈을 꾸다는 것은 그 당시 내겐 너무나 사치스런 일이었다.” 고백하건데 교수가 될 생각은 정말 눈곱만치도 없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교수가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대학생활을 치열하게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1980년대를 종단하며 산과 산을 매어놓은 줄을 타는 심정으로 건넜다.

나는 1959년생이다. 우리 나이로 아버님이 59세, 어머님이 40세에 나를 나오셨으니 상당히 늦둥이인 셈이다. 하기야 내 동생은 1962년생이니 나보다 훨씬 더 늦둥이이다. 모두 제주4.3사건 덕분이다. 아버님(1901~1963)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비교적 연로하신 어머님(1920~1993)은 중학생 때부터 “너랑 큰 공부(大學)하지 말고 면서기(面書記)하라.”고 말씀하셨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꿈은 과학자였다.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돌렸다.

“나(소크라테스)는 젊었을 때 자연학, 즉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과 같은 유행의 철학에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우주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인 것이며, 자연이나 별의 운동도 아니고 화학원소의 성질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인간적 자연의 연구를 중지하고 인간성의 연구에 몰두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선(善)인 줄 알면서도 악(惡)을 행하는 것은 어째서일까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교체함으로써 나와 내 동료들이 보다 좋은 인간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전해주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지적 태도의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 있어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나(토인비)는 누군가 현대의 소크라테스가 현대세계의 정신 방향을 바꿔놓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과학과 기술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 자아의 탐구에 최우선권을 주도록 방향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살〉

아놀드 J. 토인비, 『未來를 산다』 중에서

수학과 과학이 재밌고,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는 것이 좋아서 과학자를 꿈꾸던 소년이 이 글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대학 진학이 또래보다 2년 정도 늦은 1980년에 동국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1년 쉬고, 대학에서 낙방하여 재수를 한 결과이다. 다행히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이 좋아서 4년 전액 장학생이 되어 등록금 걱정은 덜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과(理科)여서 인문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왜 우리는 선(善)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惡)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게 되는 걸까?”라는 것이 알고 싶어 철학과로 진학했다. 당시 철학과 입학 정원은 20명이었다. 입학동기들 가운데는 출가한 이도 있고, 전과한 이도 있으며, 학생운동으로 제적되어 학교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된 이도 있다.

당시 철학과 교수로는 정종, 한상련, 김용정, 송석구, 김항배 선생님이 계셨다. 주머니 사정 때문에 강의교재를 새 책으로 구입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청계천 중고서점에서 묵은 책을 찾아야 했다. 두터운 안경을 쓰신 정종 교수가 철학개론을 가르쳤다. 1915년생인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임을 앞둔 마지막 강의라 하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국이 어수선한 바람에 강의를 몇 번 듣지 못하였다. 어렵풋하게 반더포겔(Wandervogel)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을 뿐이다. 반더포겔이란 독일어로 ‘철새’라는 뜻이며, 철새처럼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심신을 다지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이 도보로 낯선 지방을 순회하면서 견문과 체험을 쌓아, 인간적인 성장을 꾀하자는 운동이었던 것이다. 실존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은 사르트르가 서거한 소식을 전

하면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강의시간에 못 배운 선생님의 철학은 [고뇌의 철학]을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 맞볼 수 있었다. 김항배 교수는 박종홍의 [논리학]을 강의했는데, 수업거부, 연속되는 휴강, 5.17휴교조치로 진도는 30페이지도 못 나갔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주연(周延)’과 ‘부주연(不周延)’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죽는 것은 주연과 부주연을 혼동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시대 상황은 한가롭게 철학 공부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군부독재라는 철권통치 아래에 있던 겨울 공화국이었고, 자유롭게 진리와 정의를 논해야 할 대학은 숨이 켜지지 않는 상아탑이었다.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다 학교를 떠나야 했다. 세간에서는 1980년 봄을 ‘서울의 봄’이라고 한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유신을 통해 종신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부하에게 살해됨으로써 18년 군부독재 철권통치가 종말을 고했다. 학생들과 재야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암중모색하던 차에 12.12사태를 통해 등극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은 또 다시 군부독재를 획책하고 있었다.

1980년 3월 대학가에서는 막혔던 붓물이 터지듯 자유가 넘실거렸다. 우리 학과 복학생 선배들이 시위를 이끌었다. 소식을 전하는 대자보에 어용교수 무능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우리 학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갓 입학한 신입생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집회에서는 “전두환(보안사령관)과 신현확(국무총리)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시위대가 시내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잦아지면서 최루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자라 우리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 다만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고 그리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것 가운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활〉

데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치상황도 그렇지만 성격조차 내성적이라 서울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이 없는 아이였다. 남 앞에 서서 말을 하려면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다 보니 남 앞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던 것이다. 그러한 성격을 고치지 않고는 대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남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얼굴에 철판 가는 작업이 필요했다. 고심하다가 용기를 내어 민속극연구회(탈춤반)의 문을 두드렸다. 얼굴을 가리고 남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였다. “낙양동천이화정! 콩 덕꿍 콩더억” 외치면서 춤사위를 하다 보면 얼굴이 붉어질 시간이 없었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서 남들이 한 번 할 때 서너 번을 반복해야 겨우 따라 할 수 있었다. 선배들로부터 봉산탈춤, 양주별산대, 통영오광대 등에 대해서 주워듣고 서울시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해주고, 양주별산대 전수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남 앞에 서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학생들의 민주화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갔고, 민주화 시위가 교내외에서 계속되었다. 거의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불상 주위를 돌았고 교수들은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하였다. 집회 때 주로 부르던 민중가요(당시는 ‘데모가’라 하였다)는 주로 ‘올라송’(전두환은 물러가라 올라올라 ~), ‘늙은 군인의 노래’(나 태어나 이 강산에 투사가 되어~), ‘우리 승리하리라’(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 날에 오, 참 맘으로, 나는 믿네 ~), ‘진달래’(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뿔등마다, 그 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아침이슬’(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그 때 그 사람’(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 등이었다.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살> Ⅱ

1980년 4월에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재야인사였던 김대중 씨의 강연이다. 중강당에서 강연을 했는데 구름같은 인파가 몰렸고 어떤 이들은 본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갔다. 교정에 인파가 넘쳐나는 바람에 승용차를 들어서 이동해야 했다. 5월이 되면서 민주화 시위가 더욱 잦아졌다. 5월 15일에는 수천 명의 학생이 모여 중문을 거쳐 시내로 진출하였다. 그 날은 이상하게도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막지를 았았다.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등을 거쳐 종로로 가다보니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학생들도 합세하기 시작하였다. 시청으로 가는 도중에 최루탄이 날아오면 흩어지고 다시 모이다보면 맨 뒤에 섰던 사람이 맨 앞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남대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도로와 광장에 서울시내 대학생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군중심리에 휩싸여 남대문 성벽 사면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쳤던 기억도 난다.

당시에 하숙집 아주머니는 4.19 때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는 것을 보았다면서 데모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 하나 희생되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하여 매일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시내로 나갔다. 다음 날에도 5.16쿠데타를 규탄하는 집회는 이어졌고 헬기들이 남산 주위를 돌기도 하였다. 5월 17일에 갑작스레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각 대학에는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진주하고 고려대 정문 앞에는 장갑차가 포진하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민주의 봄은 가고 정국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다. 1980년 1학기는 허무하게 끝이 났다.

5월 23일 고향 제주로 내려가야 했다. 목포행 완행열차를 탔다. 한밤중에 광주 송정리에 도착했다. 기차가 떠나 줄을 물랐다. 아줌마들이 기차에 뛰어올라오면서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희생되고 있으니 교련복을 입은 대학생은 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 했다. 객기였는지 "내가 뭐가 잘못했나?"고 반문하면서 그럴 수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살>

없다고 버텼다. 광주민주항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던 것이다. 한참을 머무르던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목포에 도착하여 제주행 배를 타니 비상계엄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980년 10월부터 4주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1981년 12월까지 고향인 제주에서 방위근무를 하였다. 근무를 하는 동안 집안 형편상 대학 다니는 것은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하였다. 1982년 여름 출석수업을 받기 위해 제주대로 갔다. 거기서 4학년에 재학중이던 중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다. 어찌된 일이냐고 집요하게 근황을 물어왔다. “네가 아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서 대학 다니는 걸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실직고(以實直告)하였다. 친구 왈(曰) “네가 대학에 다닌다 해서 너의 집이 더 망할 것도 없고, 대학을 안 다닌다 해서 너의 집안이 금방 일어설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공부해야 할 놈이다, 당장 서울로 다시 올라 가라.”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보니 출석수업도 놓치고 말았다.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어머니께 서울로 공부하러 가겠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돈을 마련해달라는 말은 더욱 할 수 없었다. 동네 아주머니에게 서울 갈 차비 3만원을 빌렸다. 옷가지 몇 개만 챙기고 서울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서울 가면서 눈물 닦으라는 의미로 손수건 한 장을 건네주셨다.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상경인 셈이었다. 양희은의 ‘서울로 가는 길’을 부르면서 서울로 가게 되었다. “우리 부모 병들어 누우신저 삼년에 뒷밭에 약초뿌리 모두 캐어 드렸지,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나 ~”

서울로 올라왔건만 목을 데가 만만치가 않아서 서울서 생활하

던 누님에게 신세를 지면서 부딪쳐 보기로 하였다. 복학하는데도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5.17계엄 때문에 휴학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관계로 미등록 재적된 상태였고, 81학번부터 졸업정원제 실시로 정원이 넘쳐서 복학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동료와 선배들의 연관장을 돌려 청원해준 덕분에 겨우 복학할 수 있었다. 82학번 후배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다.

복학하고 보니 학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교정은 얼음판이었다. 많은 선후배와 동료들이 “군부독재 타도하자!”고 외치다 제적당하고, 군대에 끌려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다보니 선후배들 간에 사회과학 스터디모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뿌리다가 체포되어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였고, 도서관 건물 외벽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거나 현수막을 내걸다가, 그리고 시내에서 시위를 하다가 투옥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는 끝내 학교로 되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고, 강제징집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주로 불리는 민중가요는 ‘님을 위한 행진곡’(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무겨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오월의 노래’(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찢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타는 목마름으로’(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등이었다. 서울의 봄은 너무 짧았다. 자유를 맛본 사람에게 독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숨이 킁킁 막히는 독재의 시대였다.

1982년에 황필호, 황경식 교수가 새로 부임하였다. 수업을 기르고 청바지를 즐겨 입던 황필호 교수는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대중적인 철학책도 많이 써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당대의 스타였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황 교수의 첫째 ~,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활>

둘째~, 셋째~ 등으로 이어지는 종교철학 강의는 명쾌했다. 그의 카리스마는 학생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었지만, 술집에서 소탈하게 부르시는 “눈물도 한숨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부르시는 ‘맨발의 청춘’과 “술술술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는 우리를 열광케 했다. 선생님께선 어렵게 살았던 기억 때문에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남기는 법이 없었다. 요즘 황 선생님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찾아뵙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갓 돌아오신 삼십대의 황경식 교수는 깔끔한 외모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학생들로서는 경원(敬遠)의 대상이었다.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는 너무 젊어서 대학원생인 줄 알았다. 선생님께선 복학 첫 학기인 1학년 2학기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중심으로 분석철학을 가르치셨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편력은 나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중고등학교 때 롤 모델이 아인슈타인이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새로운 롤 모델로 다가왔다. 중간과제로 ‘전기(前期) 비트겐슈타인’을 내주었는데, [트락타투스]와 관련 논문과 책들을 읽어 원고지 100매 정도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했다. 황 선생님께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코멘트를 해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선생님과 학문적 인연을 맺게 되었다. 윤리학 전공인 황 교수는 롤즈의 [정의론]을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하였고, 생명의료윤리, 환경윤리 등과 같은 응용윤리와 철학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오늘날 대학에서 환경철학, 생명철학, 철학교육 등을 가르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영향이다.

황 선생님께선 강의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지적 욕구를 채워 주셨다. 2학년이 되자 롤즈의 [정의론] 원서와 번역서를 주시면서 번역상의 오류를 찾아보라는 과제를 주셨다.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었고, 수정 번역본을 낼 때 옮긴이 말에 이름 석 자를 올려주셨다. 무엇보다 고마운 건 선생님이 참석하는 대부분의 학술

대회,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어린 학부생인 나를 데리고 다니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책과 논문으로나 만날 수 있는 선배 철학자들을 직접 면전에서 만나 학연을 쌓을 수 있었다. 두고 두고 고마운 일이다. 선생님은 몇 해 전부터 정의론(正義論)을 넘어서 덕론(德論)으로 새로운 윤리학의 영역을 구축하고 계시고 지난해 8월 서울대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다.

한상련 교수는 1982년 2학기 한국철학사 강의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선생님은 조용한 선비같은 분이셨다. 어렵듯이 기억에 남는 것은 ‘새삼스리’ 철학이다. 친숙했던 것들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면 모든 게 불확실해지게 되고, 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내가 지금도 학생들에게 “철학이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과연 당연한 것인가 되묻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업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선생님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김용정 교수는 철학과를 다닌 후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의 칸트라고 할 정도로 외모와 분위기가 칸트를 닮으셨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1세대 과학철학자이자 칸트연구자로서 인과적 자연과 자유로운 인간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으셨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그는 불교철학, 예술철학, 그리스철학 등의 동서고금의 철학을 종합무진하셨다. 선생님의 [칸트철학연구]와 번역서 [칸트철학 이해의 길]은 당시 칸트 연구자들에게 고전이면서 안내서였다. 먼 산을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시는 선생님의 강의는 약간은 신비적이었다.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는 줄리겠지만, 거기에 푹 빠지는 학생팬들이 아주 많았다. 불교의 세계관에 토대를 둔 광대무변한 우주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강의는 인식의 한계를 깨우치고, 그의 예술철학과 미학 강의는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였다.

김 선생님은 객관적이고 온유한 분으로 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지만, 많은 교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초대 교수회장을 지

■ 은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살〉

내셨다. 우리 철학계의 수장인 한국철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학교를 퇴임한 후에는 계간 [과학사상] 편집인을 맡기도 하였다. 필자는 학과 조교를 끝낸 이후부터는 늘 선생님과 함께 했다. 교수회 조교, 한국철학회 간사, 계간 [과학사상] 편집주간 등은 선생님과 함께 한 이력들이다. 선생님이 교육대학원장 시절 소개해준 제자가 지금 나의 처가 되었으니 선생님은 나의 학문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거둬주신 셈이다. 김 선생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학자의 길, 스승의 길, 사람의 길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혜겔을 전공하신 이석윤 교수가 3학년 때 부임해 오셨다. 이 선생님께서는 인식론, 역사철학, 독일관념론 등을 가르치셨는데 꼬장꼬장한 강의는 빈틈이 없었다. 인식론 강의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독일어 원서로 하셨다. 진도를 많이 나가진 못했지만, 칸트의 인식론과 독일어 원전에 대한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독일관념론에 대한 강의는 칸트, 피히테, 셸링, 혜겔 철학을 정리한 선생님의 글을 불러주면 받아 적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 당시는 뭐 이런 강의를 있나 싶었지만, 나중에 그 강의노트는 독일관념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동국대 철학과의 강점은 동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동양철학 담당으로 송석구, 김항배 교수가 계셨는데, 송 교수는 유가철학과 한국철학을, 김 교수는 노장철학과 중국철학을 강의했다. 송 선생님으로부터 한국의 유불(儒佛)사상과 주렴계의 [태극도설], 이황의 [성학십도], 율곡의 [성학집요] 등을 배웠던 게 기억에 남는다. 태극도설을 외워보려고 했는데,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학행정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은 나중에 본교 총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김항배 교수는 노자의 [도덕경]을 강의하셨는데, 그 때 배운 내용들은 지금도 내 삶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도(道)를 설명하면서 “옛날 흙집을 짓는 두 친구가 있었다. 하루는 한 친구는 지

봉으로 흙을 던지고 다른 한 친구는 지붕 위에서 흙일을 하는데, 함께 일하던 친구 코에 흙이 묻었다. 친구가 그것을 떼어주려고 코를 들이대라 하여 자귀(나무를 깎는 연장)로 코를 내리쳤는데, 코는 다치지 않고 흙만 깨끗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4.19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선생님은 사석에서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시기도 하였다. 고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찾아가 상담하던 선배이자 선생님이셨는데 요즘은 안부마저 못 드리려 죄송하기 그지없다.

대학원 진학은 꿈도 못 꾸던 상황이어서 학부 때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다.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 공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여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등의 수업을 듣기도 하였는데, 김영태 교수의 한국불교사, 고익진 교수의 대승불교, 원의범 교수의 인도철학, 서경수 교수의 인도종교 등이 기억에 남는 강의들이다. 그리고 소설가 이범선의 문학개론, 두서언해의 대가 이병주 교수의 교양한문, 남도영 교수의 한국사, 목정배 교수의 불교학개론, 홍치유 교수의 자연과학개론 등이 기억에 남는 교양강의들이다. 지금도 가끔 [고문진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석전 이병주 선생님 덕분이다.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민주화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민투’니 ‘자민투’니, ‘NL’이니 ‘PD’니 하면서 노선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과 백기완 선생이 암담한 현실에 울분을 토할 때는 학생들이 발 딛을 틈 없이 들어차기도 하였다. 학원자율화로 학도호국단을 해산하고 총학생회가 부활되면서 대학가에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당시 총학생회 선거는 축제 분위기였고, 선거유세는 요즘 국회의원 선거 유세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하지만 복학을 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 가운데도 학생운동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살>

을 하다가 끝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평생 짐으로 남고 있다. 지금도 환경단체와 진보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화의 시대를 살았던 책임의식 때문이다.

당시 우리 철학계는 분석철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60-70년대 강단철학이 실존철학과 데칸쇼(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등의 관념철학을 빗대서 부르는 것)로 지칭되는 관념론에 사로잡혔다면, 80-90년대 강단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철학, 롤즈와 노직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철학, 그리고 김재권의 수반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철학이 주류를 형성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은 강단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자체 스터디를 통해 헤겔, 맑스, 비판이론 등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치(精緻)한 논리로 논증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석철학은 처음에는 상당히 명쾌해서 마음에 들었다. 사실,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이후로 철학의 가장 큰 덕목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개념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끄는 토론들로 인해 회의가 들었다. 칼을 갈았으면(분석철학을 통해 치밀한 개념분석과 논리를 연마했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찢러야 하는데(현실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앓았던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왜 사람들은 선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걸까?”를 알고 싶어 철학과에 왔는데, 이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철학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수학과를 갈 걸 하는 후회마저 하기도 하였다.

분석철학에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당시에 박사과정에 다니던 선배를 찾았다. “철학과에 온 게 너무 후회된다, 철학이 이런 거냐?” 따지듯이 물었다. “이제 한 학기 철학공부하고서 철학이 어

떨다 단정하지 말라, 앞으로 더 철학을 공부하다보면 네가 하고 싶은 분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The Owl of Minerva]를 건네주었다. 내로라하는 18명의 현대철학자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었다. 여러 사람이 써서 문체가 서로 달라 읽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번역해서 [미네르바의 올빼미]라는 이름으로 서광사에서 출판하였다.

학부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 중 하나는 학과 스터디이다. 선배들과 웨스트팔의 [어떻게 철학을 할 것인가]를 읽었는데, 선배들을 믿고 미리 안 읽어 가다보니 남는 게 없었다. 반면에 후배들과 읽은 책들은 기억에 생생하다. 논리학과 철학개론 등은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늘 콤플렉스로 남았다. 2학년이 되자 후배들과 스터디를 하기로 했다. 새먼의 [논리학], 브레넌의 [철학의 의미]를 완독하면서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내용을 이해해야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었기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 덕분에 논리학과 철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3학년 여름방학 때 후배들과 고통스럽게 완독했던 램프레히트의 [서양철학사]는 두고두고 보약이 되었다

집에서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학 다니는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해야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과외가 불법이어서 하는 수 없이 다른 길을 찾아봐야 했다. 방위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맨 처음 접한 아르바이트는 서적판매였다. 전집 팜플렛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주문받는 일이었는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어서 도저히 내 취향에 맞지 않았다. 책을 팔려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내 성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종로 거리를 종일 걸어 다니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서 찾은 게 보조키 장사였다. 아파트 현관문 보조키를 주문받으러 다니는 일이었는데 한 달여 하다가 그만 둘 수밖에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살〉

에 없었다. 보증금을 받고 채용해놓고도 젊은 사장(?)이 약속대로 돈을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자영(?)을 해야 했다. 리어카를 한 대 구입해서 생선장사를 하기로 하였다. 노량진 수산물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어다가 신설동, 보문동, 청량리 등지에서 팔려는 속셈이었다. 버스기사들은 물이 줄줄 흐르는 생선을 버스에 싣는 걸 좋아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실어야 했다. 업무(?) 첫 날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생선을 리어카에 싣고 눈발이 날리는 청량리 주변을 고기를 사라는 소리는 한 마디도 못한 채 종일 돌아다녔다. “생선 사려!, 동태 사려!~” 외쳐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었다. 다리는 아프고, 날은 어두워가고, 한 마리도 팔리지는 않고, ... 막막했다. 도저히 이대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 아무도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 혼자 골목 구석에서 힘껏 “생선 사려!, 동태 사려!”를 외쳐 보았다. 목이 트였다. 다시 리어카를 돌려 “생선 사려!, 동태 사려!~”를 외치면서 큰 거리로 나왔다. 마침 퇴근길이었다.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한 시간이 채 안 되어 모두 팔려 나갔다.

생선을 파는 데 어느 정도 이력이 붙자 새벽에 신설동 거리에 서도 팔았다. 이른 새벽 냉동생선을 토막내다보면 처음에는 손이 얼얼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손이 따뜻해지곤 했다. 가끔 보문동 상설시장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팔다 남은 생선을 붕어빵 파시는 할머니께 드리면 고맙다고 붕어빵을 주시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포장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첫 날에는 리어카를 끌고 가다 운전이 서툴러 맥주집 간판을 부셔놓아 곤욕을 치렀고, 동묘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어묵을 끓이며 손님을 기다려도 찾는 이가 없어 불어터진 어묵을 쓸쓸히 혼자 해결하기도 하였다. 포장마차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고,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느라 얼마 못 가

그만 뒤야 했다.

몸져누우신 어머님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다. 집안 형편상 대학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친구의 권유로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하였다. 그러저럭 누님에게 신세를 지면서 복학한 첫 학기를 끝낼 수 있었다. 겨울방학이 되면서 운이 좋게 한일은 행 창구 안내원으로 두 달 간 채용되었다. 정부에서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선심으로 주어진 자리였다. 은행 고객들은 모두 내 고객이라 생각하며 안내를 하다 보니 고객들의 성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을 보는 순간, 세금 내러 왔는지, 예금하러 왔는지, 돈을 찾으러 왔는지 등을 대충 알아맞힐 수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 친절한 학생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고, 은행 측으로부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은행에 근무하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당시 받은 돈은 유니폼으로 맞춘 양복 대금내고 세계사상전집 사고, 나머지는 당분간 생활비로 쓸 만큼 돈이 꽤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한부 아르바이트였다.

2학년 가을이 되자 송석구 교수가 입주과외를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다.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당시에 과외금지조치로 과외는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지도교수였던 황경식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지를 잘 아는 선생님은 과외를 하라고 했다. 당신도 과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칸트도 과외를 하면서 철학공부를 했다, 가난한 학생이 과외를 해서 대학에 다니는 것은 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주과외 하는 가정은 가족들 간에 우애가 매우 돈독했다. 한 식구처럼 대해줘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입주과외를 하면서 만두를 싫어하는 식성을 갖게 되었다. 그 집에서는 거의 매주 식구들이 모여 앉아 만두를 빚었다. 김치만두, 야채만두, 고기만두 등 재료법도 다양했고, 찌만두, 군만두,

■ 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일>

물만두, 만둣국 등 조리법도 다양했다. 참으로 만두가 맛있었다. 하지만 시골에 살면서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던 차에 거의 매주 만두를 먹으니 물리게 된 것이다. 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동안 만두를 전혀 못 먹었고, 지금도 만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입주과외를 그만두고는 다시 살길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제일은행 야간 경비 자리가 나왔다. 야간과 휴일에 당직을 서는 자리였다. 직원과 당직을 서게 되면서 저녁식사도 함께 해결되었다. 일단 숙식이 해결되었고, 밤늦게 순찰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한 생활은 약 1년간 이어졌다.

학교 다니는 동안 엠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그 가운데 땅을 치며 민중가요를 부르고 밤새 토론하던 남이섬 엠티가 기억에 남고, 유승중 선배와 몇몇 동기들이 함께 했던 오대산 등반에는 너우를 만나 기겁을 하고, 월정사, 상원사를 거쳐 능선을 넘다 길을 잃어 외딴 산속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던 기억도 생생하다.

3학년 때는 설악산 수학여행이 잡혔다. 당시 과대표가 수학여행 계획을 짜면서 갈 거냐고 묻길래, “갈 거로 해두라”고 대답했다. 당시에 입주과외를 하고 있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혼자만 끔끔 고민하다가 주인집에다 수학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마침내 갈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회의를 하게 되자,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난리가 났다. 누구는 뭐 준비하고, 누구는 뭐 장만하고 계획이 다 섰는데, 이제 와서 빠지겠다니 말이 안 된다는 게 중론이었다. 박 군이 지도교수였던 황경식 교수를 찾아가 “용택이 형(그 때는 여자 후배도 남자 선배를 형이라 불렀다) 때문에 수학여행이 파토나게 생겼다.”고 했다. 황 교수가 왜 못 가는지 물었다. “수학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가

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 그래서 안 간다.”고 케변(?)을 늘 어놓았다. 황 교수가 호통을 쳤다. “네가 철학을 잘 못 배워서 그렇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한다. 수학여행을 가고 안 가는 것은 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고민할 문제도 아니다.” 끝내 수학여행에서 빠지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철학을 한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모든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철학적으로 고민할 것은 철저히 고민하고, 상식적으로 넘어갈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철학도들이 육을 먹는 것도 사사건건 매사에 철학적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까지도 생각 없이 넘긴다는 데 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빌려 “철학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철학하는 삶은 아름답다”, “철학하는 삶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지금도 마라톤 중계와 야구경기는 꼭 보는 편이다. 둘 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100미터 경주가 아니라 4만 2천195미터를 뛰는 마라톤처럼 홀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고독한 경주이다.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후 쓰러지는 마라톤 선수는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고 숙연하게 한다. 동국대를 다니면서 야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야구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이다. 그러기에 야구는 인생과 닮았다. 투수는 최선을 다해 공 하나하나를 던지고, 타자는 그 공들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최선을 다해 쳐내야 한다. 야구 경기가 시작되어서 끝나는 순간까지 던지고 때리는 공 하나하나에 의미가 들어있다. 게임이 끝나야 끝나는 게 야구이다. 야구는 9회말 투 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80년대는 동국대 야구팀의 전성기였다. 배성서 감독에 이어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활〉

김인식 감독이 왔고, 김성한, 한대화, 이강철, 이견열, 송진우 등이 있어서 대학야구 우승도 몇 차례 했다. 동대문야구장이 학교 근처에 있어서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에는 전교생이 야구장으로 몰려갔다. 게임이 무르익으면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창창한 남산 기슭 우리 동대는 드높은 임전무퇴 보람에 산다. 풍상에 가다듬은 억센 팔다리 나간다 우리 동대 우리의 자랑 용맹 정진 용맹 정진 우리 동대 남산 코끼리 우와와 우와와 우와와 우와와 우리 동대 남산 코끼리” 우승이라도 하는 날엔 수천 명이 시가행진을 하면서 학교로 돌아왔다.

아직도 아쉬운 야구에 대한 추억이 있다.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 한일전으로 기억된다. 친구들과 잠실야구장으로 갔다. 이미 일반석은 초만원이고 특석만 남아 있었다. 대학생들에게 거금을 투자해서 특석에 앉는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친구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보았다.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와 한대화의 풀대를 맞추는 홈런으로 일본을 꺾고 역전 우승을 하던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 때 돈을 좀 주고서라도 특석에 앉아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부 졸업을 앞두고 되었다. 학부 졸업논문은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에 대해서 쓰기로 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소로우, 간디, 롤즈 등의 시민불복종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4년이였다. 졸업학기가 되자 뭐를 해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짝 찼다. 오라는 데는 없지만 뭘 해야 할지 걱정되지는 않았다. 시험 삼아 동아일보 기자 시험에 응시했다. 고시에 버금가는 인기 있는 시험이어서 준비를 하지 않고 보았으니 떨어지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해도 두려울 게 없었다. 공무원, 기자, 농부, 청소부, ...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철학을 하면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학부 졸업한 것만도 감지덕지였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은 꿈도 꾸지 않았다. 황경식 교수에게 어떤 사람이 학문을 하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공부를 하는 데는 ‘돈’, ‘머리’, ‘노력(의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에게는 그 셋 가운데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선생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다 갖는 사람은 드물다, 그 가운데 둘만 있어도 된다, 그래도 너는 머리와 의지는 있지 않느냐”고 위로(?)하셨다. 고백하건대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 암기력과 이해력이 남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남들에 비해 약간 나은 게 있다면 성실하다는 것이다. 1985년 2학기가 되자 황 선생님은 서울대로 자리를 옮기셨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 생활을 더 지속하기가 막막했다.

학과 교수님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셨다. 선생님들이 잘 봐준 덕분에 조교 일을 보면서 대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조교로서 처음 맞는 1986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설악산에서 있었다. 뒤이어서 분석철학회가 2박 3일 열리는 덕분에 거의 일주일을 설국(雪國)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거기서 다른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다른 대학원생들과 학연을 맺을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철학을 전공하신 양문흠 교수가 황경식 교수 후임으로 부임해 오셨다. 대학원 강의에서 양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고대철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흄의 [인간지성론] 등의 영어원서를 이 잡듯이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강독하셨다. 강독을 하다가 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해석이 아님)를 물어 보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혼쫓이 났다. 그러다 보면 진도는 많이 나가지 못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단어 하나, 글 한 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선생님의 학문적 자세는 지금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살>

도 학자의 길을 가는데 거울이 되고 있다. 양 선생님은 제주 출신이어서 동향이지만 살갑게 지내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교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독일어 공부를 하기로 했다. 독일 대학은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고, 전해린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를 읽은 적도 있어서 학생들의 천국으로 보였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하여 독일 어회화를 배우기 위해 남산 독일문화원의 괴테인슈투트(Goethe Institute)에 등록하여 1년 남짓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유학을 떠나기엔 내가 모질지 못했다.

학과조교를 하면서 얻은 것은 학과 교수, 선후배, 동문들과 밀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1년에 한두 번은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야유회를 가기도 했다. 물론 연락하는 것은 조교의 몫이었다. 많은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미 퇴임하신 정종 교수가 평생을 함께 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부르던 ‘연인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을 울린다.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멀리서 기적이 우네요.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조교는 교수, 학생, 동문들 사이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였다. 그 가운데서도 관심과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대상은 학생들이다. 당시 대학가 곳곳에는 정보원(짹새)들이 숨어 있다가 시위라도 있을라치면 주동자를 붙잡아 갔다. 대학사회는 마치 얼어붙은 동토 속의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1987년 1월 전두환 정권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박종철 열사가 숨을 거뒀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부검 결과 고문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분신(焚身)하는 학생들이 더러 생겨났다. 우리 학과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4월 13일 독재자 전두환이 호헌조치를 내리자, 이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결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6월 10일을 전후해서 매일 종로 광화문 을지로 등 시내 곳곳에서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시내에 모여 시위를 하다 최루탄이 터지면서 지하실로 숨어들다 발목을 빼기도 하고, 신발이 벗겨져 지하도 입구에 수북이 쌓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한열 군이 6월 9일 연세대 정문 시위에서 최루탄을 맞아 쓰러졌다. 6월 10일 ‘호헌철폐국민대회’가 열리면서 민주화 열기는 전국을 휩쓸었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시위대로 참여하였다. 6월 28일에는 경찰에게 붙들려 종로 경찰서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29일 아침 풀려나고 보니 호외가 길바닥에 뿌려져 있었다. 여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노태우씨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이한열 군은 거의 한 달을 사경을 헤매다가 숨을 거뒀다. 7월 9일에 열린 이 열사의 장례식은 연세대에서 발인을 했고, 신촌로 터리를 거쳐 시청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냈다. 연세대에서 시청에 이르는 길은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은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정점을 이뤘고 마침내 군사정권의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6.29선언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에 눈이 먼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의 분열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야권 분열로 군부세력에게 정권을 연장하게 해준 것은 우리 민주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고 있다.

교내외의 급박한 상황과 바쁜 조교 업무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선 논문을 써야 했다. 제때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자료 준비가 쉽지 않았다. 논문은 일단 “칸트의 자유에 대한 연구”로 잡았다. ‘자유’라는 키워드를

■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일>

가지고 칸트철학 전반을 훑고 싶었다. 짬짬이 국회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논문과 책들을 복사하고 제본하였다. 여름방학이 되자 석사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관련 자료들을 모두 빈 강의실로 옮기고 문을 걸어 잠그고 보름간 두문불출하고 논문을 써내려갔다. 당시에 컴퓨터는 물론 워드프로세서도 없어서 논문을 쓸 때는 원고지에 한 자 한 자 써야 했다. 오자를 수정하려면 오려 붙이느라 애써야 했고, 완성된 원고는 인쇄소에 맡겨서 청타로 쳐서 마스터 인쇄를 하는 식이었다.

대학원 다니면서 왕십리에서 자취를 했다. 두 평이 채 안 되는 단칸방으로 전세가 30만원이었는데, 가끔 후배들이 찾아와서 시국과 청춘을 논하면서 자고 가곤 했다. 집과 집 사이에 지붕을 이어 만든 방이라 비가 오는 날이면 강통으로 빗물을 받아야 했다. 그야말로 '사노라면'이라는 노래에 등장하는 방이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맑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인데 제제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단칸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 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짹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힘은 들지만 언젠가는 끝날 고통이기에 하루하루가 아쉬운 나날들이었다.

석사논문을 제출하고 박사과정 시험을 치렀다. 1988년 3월이 되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해보라는 제안이 왔다. 대학원생이면 교수들한테 밉보이지 않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는 성격 탓에 고사했으나 떠밀리다시피 하여 단독출마를 하게 되었다. 대학원생 직접투표로 찬반을 묻는 선거였다. 당시 대학가는 학원자율화 흐름이 지속되어 사학의 재단개혁까지 요구하

윤용택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80년대 대학생활> ■

는 상황이었다. 당시 학부 총학생회장은 최재성(현재 민주당 3선 국회의원) 군이었는데 학생들을 설득하는 탁월한 연설능력을 갖고 있었고, 재단개혁을 주장하며 한 달 이상 재단 이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교수회를 조직하고, 그동안 재단 이사회에서 뽑히던 총장을 교수회에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재단에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중에는 대학원학생회에서도 연대하면서 일주일 간 단식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대학원학생회를 이끌면서 보람있던 일은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학술지 [동원논집]을 창간하게 된 것이다.

1989년 교수회가 조직되어 김용정 교수가 회장을 맡게 되자, 교수회 조교를 맡게 되었다. 학과 조교에 이어 두 번째 조교일을 보게 된 것이다. 교수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총장 직선제 준비를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1990년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0년대를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학생으로서 종단한 셈이다. 석사논문 주제가 '자유'였기 때문에 박사논문은 '인과'의 문제를 갖고 정리하고 싶었다. 1995년 2월에 "붕게(M. Bunge)의 인과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을 반겨줄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1990년부터는 서울예술전문대, 부천간호전문대, 방송통신대, 중앙승가대, 인천대, 서울산업대, 성신여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등에서 시간강의를 하면서 선생으로서 길을 걷게 되었다. 철학을 배워 익히고 가르치니 행복하다(哲學而習教之不亦說乎).

지난해에 국회에 근무하는 80학번 홍일점이었던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다. 서울에 올라오면 여의도에서 꼭 한번 만나자는 것이었다. 만났더니 첫마디가 결작이다. "어어? 용택씨는 30년 세월이 비껴갔네!"

고마움



13학년 김 현 미

1학년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생각나는 말은 ‘고마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선배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이 저보다 어렸던 동기들에게도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저에게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이 저를 배려했던 것인지 많이 챙겨주고 한 번이라도 저를 생각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다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었습니다.

O.T나 새터를 가지 않았던 저에게 개강파티는 대학을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처음 선배들이나 동기들을 보고 4년 동안 같이 지낼 사람들과라고 생각하니 더욱 더 정이 갔습니다. 그때의 느낌에 맞게 1년 동안 울고 웃고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활동했던 행사였던 체육대회에서 여자가 거의 없는 저희 과의 열악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 과가 아쉽게 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모두 같이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입생들의 첫 대학생활 후기 ■

가장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것은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같이 춤을 추었던 12학번 선배님들과도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선배님들과도 그 기회를 통해서 힘들었던 점이던지 재밌었던 것이던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과에 ‘매력철철’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매력있는 철학과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력이 철철 흐르고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탄탄한 철학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